

MLB 테임즈, 시즌 22·23호 연타석 홈런

홈런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볼넷 2득점

볼티모어 김현수, 대타 출전 2타수 무안타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가 연타석 대포를 쏘아올렸다.

반면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무인기에게 그려진 희비가 엇갈렸다.

테임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2홈런) 2타점 1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 매사운 타격감을 자랑했던 테임즈는 5월 들어 주춤하더니 6월 한 달 동안 타율 0.163(92타수 15안타)에 그쳐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그러나 지난 2·3월 미야미 밀린스전에 서 연속 1타수를 때려내며 타격감을 조율했고, 이날 홈런 두 방을 몰아쳤다.

3월 미야미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낸 테임즈의 시즌 타율은 0.248에서 0.248(262타수 65안타)로 올라갔다.

1회말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테임즈는 선두타자로 나선 3회 좌익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다.

테임즈의 방망이는 5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세 번째 타

석을 맞은 테임즈는 상대 선발 우발도 히메네스의 2구째 스플리터를 통타, 우중월 솔로포를 때려냈다.

테임즈는 7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연타석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시즌 23호 홈런.

한편 김현수는 이날 밀워키가 우완 투수 지미 넬슨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음에도 선발 리owan에서 제외됐다. 6회초 대타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선발 투수 히메네스 대신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넬슨의 2구째 싱커를 노리쳤으나 우익수 끝공에 그쳤다. 8회 1사 후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34에서 0.229(100타수 25안타)로 낮아졌다.

밀워키는 테임즈의 홈런 두 방과 선발 넬슨의 7이닝 1실점(비자책점) 호투를 앞세워 6-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달린 밀워키는 46승(40패)을 수확,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달렸다.

반면 2연패에 빠진 볼티모어는 48승(40승)을 당했다.

/김민근기자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가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 7회 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때려내고 있다.



순창군 유소년 축구단, 전북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

순창군(순창군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단이 '제15회 전라북도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순창군 유소년축구단은 전주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김제시 유소년축구단과의 결승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이뤄냈다.

지난 1일부터 2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총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조별 예선을 거쳐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고창군 무주군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한 순창군 유소년축구단은 최대 승부차기 준결승에서 원주군 유소년축구단 5대 1로 대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김제시 유소년축구단과의 결승전에서 전반전을 팽팽하게 마치고 후반전 서상우 감독의 신의 한수로 1대0으로 승리하며 군단위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를 마친 후 서상우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 같이 많은 준비를 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이룬 성과라 기쁘고,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초등부 3연속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체육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순창군은 유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순창군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최규순 스캔들' 일파만파... 프로야구계 '뒤숭숭'

김승영 사장 지난 2013년 심판원에게 300만원 빌려준 사실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심판매수·승부조작 의도 없어"

'최규순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프로야구계가 뒤숭숭하다. 어쩌면 프로야구가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다.

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해도,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김승영 사장이 지난 2013년 KBO 소속의 한 심판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심판매수나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례가 일파만파 커졌고 그는 결국 구단과 팬에 누를 끼쳤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두산과 최규순의 거래는 물론, 또 다른 거래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지난 4일 저녁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았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조간만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계좌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좌를 볼 권한이 없다. 계좌에 디른 구단 관계자, 선수 등의 이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O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단 대표이사가 심판에게 돈을 준 일이다. 당시 계좌가 있다면 걸 알았다면 당연히 계좌에 대한 조사 를 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쟁점에 대해 정리해 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kt위즈의 경기에 앞서 최근 두산 관계자와 심판 돈거래 사건과 관련해 두산 전통 신임 대표이사와 김태룡 단장, 김정수 상무가 구단 프린트들과 사파문을 발표하고 있다.

으로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규순 심판은) KBO 측에서 이미 퇴사한 사람이고, 연락이 안돼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승부조작 문제가 불거 른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있지만 인식 져 심판 문제가 유아부야 사고자 내렸다"며 일정 부분 실책을 인정하기도 했다.

KBO는 문체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좌조작에서 다른 야구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있지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근기자



김병만, 평창올림픽 운영인력 대장·홍보대사 위촉

방송인 김병만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운영인력 대장과 홍보대사로 활약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김병만을 대회 운영인력인 패션크루(Passion Crew) 대장과 홍보대

사로 위촉했다.

조직위는 지난 4월 정규직원과 단기인력, 자원봉사자, 용역인력 등 총 8만7000여 명의 대회 운영인력 명칭을 열정을 가진 단원이라는 뜻을 가진 패션크루로 명명했다.

조직위는 방송활동을 통해 국민적인 달인으로 일련진 김병만씨는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한 곳에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쪽장'으로서 진취성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패션크루 리더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김병만 패션크루 대장이 갖고 있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평창올림픽 패션크루에게도 확산돼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앞으로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과 자원봉사자 발대식, G-100일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는 등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선다. 내년 2~3월 대회기간 중 대회 운영인력의 사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